여성학연구, 제34권 제2호(2024.10.), pp.43~72 [DOI] http://doi.org/10.22772/pnujws.34.2.202410.43

동아시아 창조 여신 신화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여경미*

| 목차 |

1. 문제제기
2.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여성 정체성의 변화
3. 권력구조의 재배치에 따른 여성 정체성
4. 동아시아 여성 창조신들의 권력 재배치와 젠더 수행성
   1) 한국의 창세 신화 마고할미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2) 일본의 창세 신화 아마테라스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3) 중국의 창세 신화 여와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5. 결론

| 초록 |

과거에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특징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런 구분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분류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문화 전반에서는 벌써 젠더 다양성이 표현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를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고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젠더는 단순히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 행동, 옷차림 등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개개인의 창의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현재에 사는 우리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영남대학교 kkmi0410@naver.com

반면,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정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세대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담긴 신화를 통해 젠더 인식을 돕고자 한다. 그 중 동아시아 창조신화 속 여성 신들의 권력과 수행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젠더 인식과 여성 정체성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화 중 창조여신 신화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젠더에 관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신들은 시대를 이어오면서 각 시대와 지역의 철학, 종교, 민간 신앙과 결합하거나 변형되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창조 여신은 여성의 모성적, 희생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연과 우주의 창조, 질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신화 속에서 수행되는 유동적 역할과 정체성을 규정해 가는 방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통 가치관 세대가 가지는 젠더 갈등의 간극을 줄이기에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젠더, 권력 재배치, 젠더 수행성, 창조여신,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

1. 문제제기

과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구분되어 명명되던 성별은 이제 논바이너리(non-binary),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명칭과 구분의 다양성은 역할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른 삶의 방식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의 성별 옵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젠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주도 한 것으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일 것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소셜 미디어 등에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수용이 완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1]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젠더 수용세대와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의 갈등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젠더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수용 세대는 젠더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역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기반 한 성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를 어기는 젠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둘째, 사회적, 법적 권리의 확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들 수 있다. 수용세대는 성소수자의 권리와 평등을 지지하며, 성별 정체성에 기반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에 따라 법적 권리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수용 세대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군 복무, 성별 정체성에 따른 법적 서류 변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권리의 확대를 요

1) 본고에서 칭하는 '전통 가치관 세대'란 남성과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지키며, 성별에 따른 이분법을 고수하고, 그에 따른 고유한 역할과 행동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세대를 의미한다. 이 세대는 가족 구조, 사회 규범 등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다.

구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이러한 권리 확대를 사회 질서의 붕괴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젠더 다양성 교육이나 성별 중립 화장실 도입과 같은 사회 제도 변화에 커다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가정과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세대 갈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적 수용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수용 세대는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인권과 평등의 문제로 간주한다. 이들은 사회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를 사회적 혼란이나 도덕적 퇴행으로 여긴다. 이들은 변화에 저항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 요소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 외 젠더 표현에 대한 언어 사용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에서 젠더 정체성과 성교육의 범위에 대한 갈등 등이 있다. 이런 갈등은 젠더 인식이 문화와 사회 전반에 변화의 시기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고, 젠더 인식이 사회 갈등이 될 만큼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갈등일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세대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담긴 신화를 통해 젠더 인식을 돕고자 한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화 중 여신 신화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여신신화를 젠더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젠더에 관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젠더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여성 신화를 통해 젠더 문제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파악하고,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수용 세대의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또, 경제적 여건과 사회 질서의 변화가 여성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여성 창조 신화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해서 젠더 시각에서 분석한 여성 창조 신화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체성, 권력, 젠더 수행성에 관한 담론을 확장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신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창조신화 속 여성 신들의 권력과 수행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젠더 인식과 여성 정체성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버틀러(Butler)는 젠더를 고정된 정체성이나 내재된 특성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 ……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어떤 특성이나 특질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런 본질에 대한 기대가 그 속성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본질은,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특성에 대한 기대와 그런 기대가 만든 반복적 의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다. …… 젠더가 내적 본질이라고 믿는 관점이 사실상 허구임을 폭로한다. …… 사실 젠더는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천적이고 구성적인 것,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것, 무대 위의 연극적 행위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연출 되는 것이다(조현준, 2016: 14).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하는 특성이나 역할은 사회적 합의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젠더는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행되는 과정이다. 동아시아 창조여신인 마고할미와 아마테라스, 여와는 창조와 생명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여성적인 특성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다. 이 여신들은 모성, 생산성, 지혜, 권력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여성

의 역할이 단순히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여신들의 이미지는 변화해 왔다. 불교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여신들의 위상도 변화된 것은 권력과 기록의 주체가 남성에게 있던 국가적, 시대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신화가 단순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 여신들은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젠더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님을 시사할 수 있다.

창조여신을 통해 과거 여성의 역할을 단순히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신화 속 여신들의 다양한 모습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창세 여신의 역할과 행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창조여신들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여성성을 구성한다. 정체성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구성되고 유지되며, 반복적 수행은 여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성의 역할과 규범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신들 중 창조여신은 단순히 신화 속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그 여성성을 '수행'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창조, 수호, 희생, 모성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젠더 규범을 구현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아시아의 창조 신화는 주로 우주,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의 기원과 질서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신과 인간,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

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신화 속 신은 종종 공동체의 보호자나 지도자로 등장해서 사회적 규범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신들은 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각 시대와 지역의 철학, 종교, 민간 신앙과 결합하거나 변형되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창조여신은 여성의 모성적, 희생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연과 우주의 창조, 질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는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이다. 신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화는 우리에게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어 온 유동적인 개념임을 보여줄 수 있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젠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더욱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여성 정체성의 변화

김윤성(2006: 107)은 신화는 다만 특정 집단에게 성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로서 거기에는 일정한 이데올로기가 담겨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화와 젠더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담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통념을 해부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들은 평등한 역할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 시기에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모성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냥을 담당하고, 여성은 식물과 열매 채집, 어린아이의 양육, 간단한 도구 제작, 가축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채집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이었다(Burnham 외, 1990). 실제로 채집이 사회의 주된 식량 공급원이었으므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제적 역할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여겨 종종 모계 중심의 사회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여성이 주술사, 샤먼, 치유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을 것임은 창세 신화 속 여성 신들의 이야기에서 능히 엿볼 수 있다.

〈그림〉 좌측부터 울산 신암리 여성 토우, 일본 조몬 여성 토우, 중국 우허랑 토우[2)]

하지만 농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점차 가정 내의 역할로 제한되고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게 되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과 가축 사육과 같은 생계 수단이 주로 남성의 힘과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남성은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일을

2) 토우는 흙으로 빚은 인형을 말한다. 석기 시대에 여성 모양의 토기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을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 숭배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유물이다(울산매일UTV, 2024).

담당하고,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담당하는 역할로 분리된다. 노동 분업으로 차츰 성별에 따른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정당화되고 재산 상속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강화되어 간다. 종교와 철학 체계는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역할까지 가지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 사상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다.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중 장자상속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남성 본위 질서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거기에 교육에서 여성의 배제는 기록에서 남성의 독점을 가져왔다. 남성이 기록자로서 역사를 서술하면서 여성의 업적, 경험, 일상생활 등은 축소, 소외 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주술사, 치유자, 종교 지도자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남성 중심의 기록은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착생활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중심이 남성에게 옮겨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축소되었다. 사회적 지위의 축소는 교육의 배제를 가져왔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남성 독점의 역사 기록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 구조에서 소외되었고 여성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3. 권력구조의 재배치에 따른 여성 정체성

버틀러는 “권력은 거부 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다. 다만 재배치 될 뿐이다.”라고 했다. 권력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권력 구조의 재배치란 기존의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여성이 전

통적인 모성, 순종의 역할을 거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시도이다. 권력 구조의 재배치는 여성 정체성의 다양화를 가져온다.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여성을 가정과 돌봄의 영역에 국한했다면, 권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즉 여성성은 단지 모성적이고 돌보는 역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 정치적 발언, 성적 자기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여성은 가정 밖에서의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받는다. 물론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여성들은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하거나, 직물공장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가사 노동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직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들어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정권 운동, 노동권 운동, 그리고 교육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은 점차 자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재인식했다. 현재는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고 가고 있다. 이제 권력의 재배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수행되고 있다. 버틀러는 더 나아가 삶의 방식을 고정할 필요 없이 젠더 너머의 유동적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젠더와 젠더 의식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통 가치관 세대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 여성 창조신들 권위의 재발견을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혀 갈 필요성이 더해진다.

4. 동아시아 여성 창조신들의 권력 재배치와 젠더 수행성

1) 한국의 창세 신화 마고할미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마고할미 신화에는 그녀가 산과 강을 만드는 과정,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주 먼 옛날, 해도 달도 없이 어둡기만 한 세상에 마고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잠만 잤는데, 그녀가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하늘이 땅에 내려앉고 땅은 하늘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갈라졌다. 하늘이 떨어지는 바람에 별들도 질서를 잃고 우르르 떨어져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마고는 세상이 엉망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는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다. 마고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니 땅에 떨어진 하늘이 밀어 올려져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해와 달이 제자리로 찾아갔고, 다른 별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별들 사이에 뒤엉켜 있던 구름과 비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지니까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갑자기 솟아오른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까마득히 높았던 산은 사람들의 무게에 눌려 쉬익 소리를 내며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내려와서 보니 높이 솟았던 산의 정체가 바로 마고의 무릎이었다. 제주도에선 산을 오름이라고 하는데 마고가 무릎을 올려 세워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 있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마고의 발끝을 보러 달려갔다. 하지만 마고의 정강이에도 못 갔다.
>
> 마고가 드디어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오줌을 눈 후에 마고는 아직도 잠이 덜 깨서 또 잠들고 말았다. 한라산을 머리에 베고 오른발은 동해로 뻗고 왼발은 서해로 뻗어 걸쳤다. 잠에서 깬 마고는 심심해서 두 발로 물장구를 쳤다. 출렁이던 물은 땅을 덮쳤고,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다. 마고는 다리 아래에 놓여있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손으로 땅을 긁으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곳은 산맥이 되었고 푹 파인 곳은 강이 되었다. 이리하여 마고의 국토가 만들어졌다. 이 국토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다.
>
> 한참 일을 한 마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고가 내쉰 한숨은 태풍이 되어 나무와 바위를 날려 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막한 만주 벌판이 생겼

> 다. 마고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을 몰랐다. 그때는 아직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고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다. 그녀가 커다란 산을 뽑아 먹으니 이가 아프고 맛이 없어서 도로 뱉어버렸다. 그녀가 버린 큰 산은 북쪽에 박혀 백두산이 되었고 작은 산은 남쪽에 떨어져 한라산이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 뒤로 마고의 얼굴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나무위키, 2024).

마고할미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틀에 가두어지지 않은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그녀는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지배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고할미가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고할미 신화에서 마고할미가 산과 강, 들을 창조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마고할미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단순히 남성 신의 보조자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마고할미 신화의 이러한 묘사는 전통적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드러낸다. 마고할미는 자연과 인간의 창조자이자 대지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주체적 힘을 가진 존재다. 그녀의 행위는 남성 중심의 창조 신화와 대조되며 여성이 주도적으로 세상과 자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

"마고가 드디어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고 표현 한 부분을 보면 마고할미의 신체적 행위가 우주를 창조하는 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우주 창조와 연결시켜 여성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신인 마고할미가 여성성을 넘어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창조함을 보여준다. 그녀의 신체는 단순히 거대함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창조적 힘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마고할미의 무릎이 산이 되고, 그녀의 오줌이 강과 바다가 되는 등의 행위는 세상의 구성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힘을 상징한다. 또, 마고할미

가 손으로 땅을 긁어 산맥을 만들고, 강을 형성하는 모습은 그녀가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신도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마고할미의 주도적인 행위는 여성성이 단순한 생명 잉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와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권력 관계를 전복하고, 여성의 권위와 영향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권력의 재배치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고할미가 보이는 주체적인 힘과 창조성은 여성에 대한 고정된 역할이나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도적으로 세상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용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사회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 그녀의 역할이 존재한다. 고대 사회에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보호를 기원하는 시기에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인 문제나 상황에서 창조자이자 지배자다. 여성에게 지어진 전통적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단순히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가지고 힘을 위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도 아닌 마고할미 자신이 주체자이고 권력자인 것이다.

2) 일본의 창세 신화 아마테라스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을 만든 것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였다. 두 신은 결혼해 바람의 신, 곡식의 신, 강의 신, 항구의 신, 산의 신 등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마

지막으로 낳은 자식이 불의 신이었다. 그런데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다가 큰 화상을 입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자나기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자나미는 저승에 와서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저승에 온 것을 후회하며 죽을 힘을 다해 저승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승으로 돌아온 이자나기는 바다로 뛰어들어 목욕을 했다. 몸에 저승의 냄새가 배어 있어 그 때를 벗기려고 말이다. 그런데 몸을 씻는 동안 여러 신이 태어났다. 왼쪽 눈을 씻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생겨났고,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신 츠쿠요미가 나왔다. 또한 코를 씻고 나니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났다. 이자나기는 자식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먼저 아마테라스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하늘을 주마. 이제부터는 하늘을 다스려라." 이자나기는 아마테라스에게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여신으로, 일본의 최고신이다. 이자나기는 달의 신 츠쿠요미에게 말했다. "너에게는 밤의 세계를 주마. 이제부터는 밤을 다스려라." 이자나기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에게도 임무를 맡겼다. "너에게는 바다를 주마. 이제부터는 바다를 다스려라." 아마테라스와 츠쿠요미는 이자나기의 명을 받들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마테라스는 하늘을, 츠쿠요미는 밤을 다스렸다. 그러나 스사노오는 이자나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다로 가지 않고 온종일 울기만 하는 것이다. 이자나기가 보다 못해 스사노오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울기만 하느냐?" 스사노오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에 가고 싶어요." "뭐, 뭐라고? 못난 놈, 네 멋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 버려!" 이자나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스사노오를 쫓아 버렸다. 이때부터 폭풍의 신은 소리 내어 울며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스사노오는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으로 가기 전에 누나인 아마테라스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하늘이 심하게 흔들리자 아마테라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스사노오가 하늘을 빼앗으러 오는구나. 그 녀석한테 내 나라를 넘겨줄 수야 없지.'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사노오에게 맞서려고 활과 화살을 든 채 마중을 나갔다. "네가 어쩐 일이니?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아마테라스가 묻자 스사노오가 대답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누나를 만나보고 가려고요." "네 말을 어떻게 믿지?"

"나 참, 답답하네요. 내 속을 뒤집어 보여 줄 수도 없고…. 누나,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내기를 할까요? 아이를 낳아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는 그 자리에서 아이 낳기 대결을 펼쳤다. 먼저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칼을 받아 깨끗한 물로 헹구고 세 동강을 내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입에 넣어 씹은 뒤 뱉었다. 그러자 여신 셋이 태어났다. 이어서 스사노오가 아마테라스의 머리 장식인 구슬을 받아 깨끗한 물로 씻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입에 넣어 씹은 뒤 내뱉었는데 남신 다섯이 태어났다. 스사노오가 웃으며 말했다. "어때요? 내 칼에서 순수한 여신들이 태어났으니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응, 그래. 네 진심을 알겠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를 받아들였고, 하늘에서 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스사노오가 머물면서 하늘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스사노오가 성격이 난폭한 데다 장난이 심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아마테라스가 갈아 놓은 논을 망가뜨리고, 그 논에 물을 대는 개천도 메워 버렸다. 또 어떤 날은 아마테라스가 제물을 먹는 신전에 똥을 뿌려놓았다. 하늘의 신들은 이것을 보고 스사노오를 원망했지만 아마테라스는 오히려 스사노오를 감싸 주었다. 아마테라스가 허물을 덮어줘도 스사노오는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끝내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어느 날, 아마테라스의 명으로 어느 여신이 옷을 짜고 있었다. 이때 스사노오는 여신의 집 지붕으로 몰래 올라가 천장에 구멍을 냈다. 그러고는 그 구멍으로 가죽을 벗긴 말을 떨어뜨린 것이다. 여신이 너무 놀라 앞으로 넘어졌다가 그만 베틀의 북에 찔려 죽어 버렸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여신을 죽게 만들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와 함께 동생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겨,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바위굴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었다.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몸을 숨기자, 세상은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낮은 사라지고 밤만 계속되었다. 그러자 세상은 혼란에 빠져 온갖 재앙이 일어났다. 하늘의 신들은 8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아마테라스님을 바위굴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오모히카네 신이 "아마테라스님을 바위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밖이 시끌시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제 발로 걸어 나오지요." 오모히카네 신은 계략을 짰다. 먼저 저승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인 나가니키도리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강에서 돌을 주워 거울을 만들었으며, 구슬을 꿴 장식물을 500개쯤 만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오모히카네 신은 하늘의 신들을 거느리고 바위굴로 몰려갔다. 오모히카네 신은 바위굴 앞에 있는 신목(비쭈기나무)의 윗가지에 구슬 장식물을, 아랫가지에 거울을 걸어 놓았다. 그다음엔 바위굴 옆에 힘센 남자 신인

아메노타지카라오를 숨겼으며, 바위굴 앞에서 무용의 여신인 아메노우즈메에게 옷을 반쯤 벗고 뒤집어놓은 통 위에서 춤을 추게 했다. 물론 닭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울게 했다. 하늘의 신들은 아메노우즈메가 야한 춤을 추자 하늘이 떠나갈 만큼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바위굴 속에 있던 아마테라스는 밖이 시끌시끌하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지? 무슨 일이 생겼나?' 아마테라스는 밖이 궁금하여 바위굴의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바위굴 옆에 숨어 있던 힘센 아메노타지카라오가 아마테라스의 손을 낚아챘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는 바위굴 밖으로 끌려 나왔고 세상은 다시 밝아졌다.

아메노타지카라오는 아마테라스가 다시 바위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바위굴 입구에 밧줄을 둘러 막았다(최박광, 2021).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으로서의 대지모신(大地母神)이다. 후에 황실의 신으로써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무력, 군사력으로 상징되어온 남성적인 힘을 겸비하게 되었다. 많은 남성 신을 물리치고 신들의 최고지위에 군림하는 가장 중요한 신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자나기의 몸에서 탄생한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자 하늘의 통치자로 임명된다. 이자나기가 그녀에게 "하늘을 다스리라"며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은, 아마테라스가 단순히 남성 신들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적인 권력자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성과 연결되기도 하고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최고의 자리다. 하늘은 높고 넓으며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늘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곧 우주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근대화 이전의 옛 일본에서 아마테라스를 '외모가 뛰어난 미남'으로 묘사했다는 기록이나 유물들이 있다.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가 아내 이자나미를 만나기 위해 황천에 다녀온 후,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씻을 때 왼쪽 눈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신이다. 그러므로 아마테라스는 그 출

생 단계에서부터 여성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신이다. 아마테라스는 신화 속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여성성을 탈각하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성적인 복장을 하고 다른 신을 대하며, 여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없이 아이를 얻는다. 심지어는 근원적인 출생의 단계에서조차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만 태어난다. 여성적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꾀한다. 그렇기에 손자인 니니기를 땅에 내려 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신화 내에서 여신이자 최고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박광은, 2015).

신화 속 인물은 단순히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통치자로서 생명력, 권위 등 다양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비록 직접적인 출산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신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신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허나 아마테라스가 남성적인 복장을 한다거나 아이를 직접 낳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성성을 부정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신화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

여성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된다. 아마테라스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 존재이다. 태양의 여신으로서 아마테라스는 통치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녀가 하늘을 다스릴 때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며 자연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는 아마테라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 신으로서의 주체적 힘과 통치력을 강조한다. 이 신화에서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갈등은 젠더 권력의 관계를 재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스사노오가 이자나기에게서 받은 임무를 거부하고 하늘에

있는 아마테라스를 찾아간다. 하늘에서 보여 준 스사노오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은 여성 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권위를 흔드는 방식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테라스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한다. 활과 화살을 들고 스사노오를 마중 나가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고, 자신의 힘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신임을 보여준다.

아마테라스는 여성의 특성을 지닌 신이지만, 남성 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행성의 개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도전에 과감하게 맞서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하지만 스사노오가 여신을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바위굴에 숨어버리는 장면은 여성 권력이 외부적 세계의 힘과 규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테라스가 바위굴에 숨자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혼란에 빠진다. 결국, 그녀의 존재와 힘이 세상의 조화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신들이 그녀를 바위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은 젠더 권력의 재구성과 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혜로운 신 오모히카네는 아마테라스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신들과 함께 실행한다. 이는 권력 회복이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혜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상의 조화와 번영은 갈등과 조율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테라스 신화는 여성의 힘이 생명 창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통치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주체성이 다양한 도전과 대처를 통해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창세 신화 여와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창세후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땅에는 산과 강과 풀과 심지어 새와 짐승과 곤충과 물고기까지 있었지만 인간만은 없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든 조금은 황량하고 외로웠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와(Nuwa)라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여신이 나타났다. 하루에 70번 정도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날, 위대한 여신 여와(Nuwa)가 광활한 황야를 걷고 있었는데,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무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무엇을 추가해야할까? 한참을 걷다가 조금 피곤해져서 작은 연못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맑은 물은 그녀의 얼굴과 모습을 비췄고, 물속의 그림자도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갑자기 "세상에는 온갖 생물이 있지만 나 같은 생물은 없어, 나 같은 생물을 만들어 세상에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노란 진흙 덩어리를 파내고 물과 섞은 다음 손으로 반죽하여 작은 인형 같은 것이 될 때까지 만들었다.

여와는 그 작은 것을 땅에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점토 녀석은 땅에 닿자마자 살아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작은 점토 녀석은 기쁨에 넘쳐 뛰고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환호했다. 여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영리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바라보며 "엄마"라는 외침을 들으며 기쁨과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 인간의 몸은 작지만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습과 행동이 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 다니는 짐승과는 다르다.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는 우주를 다스리는 비상한 정신이 있는 것 같았다. 여와는 자신의 작업에 매우 만족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노란 점토로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귀여운 작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 작은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서 뛰어다니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위안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별과 달이 희미한 빛을 발할 때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밤이 늦어서 그냥 절벽에 머리를 대고 잠시 잠을 잤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서둘러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지구를 채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지구는 너무 크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했고, 지쳤다. 마침내 그녀는 인간을 창조하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여와는 절벽에서 시든 덩굴을 뽑아 수렁에 뻗어서 두껍고 노란 진흙이 되도록 휘저었고, 진흙이 튀는 곳에 작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엄마"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 방법을 사용하니 작업이 정말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았다. 덩굴을 휘두르자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내 땅은 사람의 흔적으로 뒤덮였다.

지구상에는 인간이 있지만 여와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한 그룹이 죽으면 또 다른 그룹이 생겨날까?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와는 마침내 작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그들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렇게 인간은 대대로 이어져 왔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여와가 창조한 인간과 동식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태고시절 갑자기 자연의 균형이 깨지는 큰 천지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그리고 불길이 맹렬히 치솟고 거센 물살이 덮쳐오는 등 하늘과 땅 전체가 변동을 일으킨 것 이었다. 험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나운 날짐승들이 노약자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이러한 불행을 겪는 것을 자비로운 여신 여와는 내버려두지 않았다. 여와는 우선 불행의 원인인 파괴된 하늘과 땅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와는 오색빛깔 나는 넓은 돌을 잘 다듬었고 그것으로 하늘의 뚫린 구멍을 기웠다. 다음으로는 무너져버린 땅의 네 기둥이 문제였다. 여와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네 발을 잘랐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방 땅 끝에 세워 하늘을 떠받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니 무너졌던 하늘과 꺼져 버렸던 땅이 본래의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 여와의 천지 보수공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방에서는 아직도 맹수들이 날뛰고 있었다. 여와는 맹수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검은 이무기를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맹수들이 점차 진정되기 했다.

또 여와는 갈대 잎을 태운재로 넘쳐나는 물을 막았다. 이제야 천지의 재앙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서늘한 가을, 추운겨울의 사계절이 전처럼 순환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락하고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짐승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경지에 이르렀다. 여신 여와의 노력에 의해 마침내 인간은 평화로운 시절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모든 과업을 이룩한 뒤 여와는 잠잠해진 인간 세상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이 손볼 것이 없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응룡(應龍)이라는 날개 돋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구름 속을 지나 하늘나라로 초연히 떠나갔다(바이두 백과사전, 2024).

중국 여신 창조 신화의 여와가 혼자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 태초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 존재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세상에 인간이 없어 황량하고 외로움을 느낀 여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후, 자신과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여와는 진흙을 사용해 사람을 직접 창조한다. 여와가 남성 신의 도움이나 명령 없이 스스로 생명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여와의 창조 행위는 전통적으로 생명 탄생을 돌보는 여성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녀는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와 우주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권력을 행사자이다. 이는 여와가 단순한 생명 창조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녀의 능동적인 역할은 여성도 우주의 창조와 유지에 중요한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권력이 재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와는 이러한 고정된 성별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여성이 보호와 보살핌을 넘어서 힘과 지혜로써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여와의 신화에서 주목 할 만 한 점은 그녀가 인간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여와는 직접 행동에 나선다. 오색 빛깔의 돌로 하늘의 구멍을 메우고, 거대한 거북의 다리로 땅을 지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여와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녀의 행위와 결정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범주를 벗어나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젠더 수행성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와가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노란 진흙을 직접 반죽하고 형체를 만드는 장면은 전통적인 여성의 돌봄이나 양육의 역할을 넘어 창조자이다. 인간을 번성시키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생식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여와가 생명의 탄생과 지속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행성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와는 창조신인 동시에 세상의 혼란과 자연의 재앙을 해결하는 수호자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한다. 오색의 돌을 모아 하늘의 구멍을 메우고, 거북이의 다리로 땅을 지탱하며, 맹수를 물리쳐 인간을 보호하는 등 여와의 행위는 여성 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임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여와의 역할은 젠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에서 권력과 통치의 중심은 대부분 남성이 자리이다. 하지만 여와의 신화에서는 여성이 창조와 수호의 주체로 묘사된다. 그녀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 관계를 재배치하고, 여성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새롭게 구성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처럼 동아시아 신화에는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와 같은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성 창조신이 있다. 이 세 창조 여신들은 각각 한국, 일본,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성 창조신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성을 보여준다.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여성 창조신으로 등장하지만, 여성의 주체성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 신들의 보조자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고 통치하는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세 창조 여신의 신화를 바탕으로 젠더를 논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

을 뒤집고, 여성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는 새로운 젠더 권력의 구도를 제시한다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세 여신들의 창조 행위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르트(Barthes, 1995)는 신화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또는 이에 올로기처럼 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신화를 이데올로기라 했을 때, 가부장적 통념은 이데올로기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차옥숭 외, 2010). 여성 신화도 가부장적 틀 안에서 가두려는 의도는 동.서양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져 오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 체계와 여성에게 부여되는 전통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 통념과 권력 구조가 반영된 신화에서 여성의 힘과 주체성 강조를 분석해 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젠더 평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세 창조 여신의 신화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서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이 신화를 통해 새로운 젠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다. 세 여신의 신화는 전통적인 문맥 안에 여성의 주체적 역할과 힘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 문화적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젠더 수용 세대는 기존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독립성과 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수 있고, 전통 가치관 세대는 전통적 젠더 규범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도 젠더 인식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 모두 남성신들 없이도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의 힘과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서사가 전통적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고의 잦은 노출은 전통적 해석 세대와 젠더 수용와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좁혀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 여신의 젠더적 해석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전통 신화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마고할미와 여와의 신화에서 여성의 창조적 힘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역할이 자연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틀 안에 묶어 두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신화를 통해 여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적인 젠더 수용을 완전히 뒷받침해주지 않아 기존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화의 서사에서는 젠더 정체성이나 사회적 불평등 등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젠더 수용 세대가 제기하는 모든 젠더 관련 이슈를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통 신화 속의 여성은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이 상징이 곧 현실에서 여성의 지위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 여신의 서사를 통해 실제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화 자체가 현대의 복잡한 젠더 이슈를 모두 포괄하거나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화들을 교육 및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젠더 인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신화 속에 내재된 여성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세대 간의 젠더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젠더 수용 세대의 관점에서 신화의 젠더적 분석과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면 전통 가치관 세대도 변화된 인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신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대한 서사체로, 그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종종 당대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창조신화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 창조신들인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는 기존의 가부장적 통념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일부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주로 생명 탄생, 육아, 보호 등의 돌봄 영역에 국한된 여성의 역할은 창조 여신 신화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과 강을 창조하고 국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자연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적 요소와도 결합되어 있으면서 젠더로서 여성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마테라스의 통치권이 아버지 신인 이자나기에 의해 부여된다는 점은 신화 속 숨어있는 이데올로기 이다. 하지만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도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통치자가 되고 투쟁에서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다. 마고할미도 그러하지만 여와는 남성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위기에 직접 나서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강력한 수호자의 모습을 보인다. 여성도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 돌봄과 수호의 이미지를 여성이 가지는 모성 본능에 국한해 해석할 수도 있다. 여와의 창조 행위가 여성의 생명 창조와 보호의 역할로만 상징해 버릴 수도 있다. 또 여와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그들이 번식하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부분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생명 잉태와 번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의 권력이 생명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창조신화로 젠더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간극을 줄이는 게 간단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성창조신화를 통해 여자, 남자 이분법적 구분짓기를 넘어서 여성성도 남성성도 아닌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로인해 고정관념을 깨고 젠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신화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텍스트이다. 태초의 여성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신화 속 여성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본다면 그 간극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여성 신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현대적 가치와 결합하여 젠더 서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여성 신화를 다양하게 해석을 분석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활용한 재해석은 젠더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신화의 환상성 서사와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현재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일 것이다. 이런 미디어들과 통합해 자연스럽게 여성 신화를 젠더적으로 해석하고 공유한다면 전통 가치와 젠더 세대와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화는 해석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미디어와 SNS의 발달은 상업적 흥미를 위해 신화의 본래 맥락과 의미가 왜곡되거나 자극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편향된 데이터를 활용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거나 정형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 미디어로 인해 잘못된 젠더 고정관념이 생긴 사례도 종종 발생했고, 그로 잘못 인지된 젠더 고정관념이 생긴 사례도 다소 있었다. 여성 신화는 각 문화권

의 독특한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 젠더 담론에 활용할 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신화를 현대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디어가 편향된 시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미디어 전달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성 신화는 여전히 현대의 젠더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원이다.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신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의 권력이 생명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젠더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수용하는 사회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김윤성. 2006. “젠더의 렌즈로 읽기- 가부장적 통념과 여성적 힘 저널정보.”『종교연구』 45: 107-134.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2000.『신화와 의미』. 임옥희(역). 서울: 이끌레오.

바르트, 롤랑. 1995.『신화론』. 정현(역). 서울: 현대미학사.

박광은. 2015. “사회적 권력 관계와 여신의 자리-고조선 건국신화와 일본 왕권신화를 중심으로.”『동방문학비교연구』 5: 41-76.

버틀러, 쥬디스. 2022.『젠더트러블 페미니즘과 전체성의 전복』. 조현준(역). 서울: 문학동네.

번햄, 린다, 미리엄 루이. 1990.『여성해방이론의 쟁점』. 강이수(역). 서울: 태암.

이창수. 2005. “아마테라스는 여신인가?:《고사기》를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 9(2): 53-78.

조현준. 2016.『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차옥숭 외. 2010.『동아시아 여신신화와 여성 정체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최박광(역). 2021.『일본서기/고사기』. 서울: 동서문화사.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나무위키. 2024. “한국 신화.” https://namu.wiki/w/ [검색일: 2024.9.9.]

바이두 백과 사전. 2024. “고대 중국 신화와 전설, 누와(Nuwa)가 인간을 창조하다.” https://baike.baidu.com/item/ [검색일: 2024.9.10.]

김진영. 2024. “신암, 선사 해양인류가 풍요를 기원한 해안.”〈울산매일UTV〉. 2023.9.6.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145 [검색일: 2024.9.10.]

Abstract

Gender Power and Performativity through East Asian Creation Goddess Myths

Yeo, Kyung-Mi
(Yeungnam University)

Judith Butler views gender as something that is created through repetitive actions perform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as a fixed identity or inherent characteristic. To narrow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 with traditional values and the generation that accepts gender d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id gender perception through myths that contain the most traditional values. It also analyzes the power and performance of female deities in East Asian creation myth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gender perception and female identity in modern society and explores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power structure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enerations lies in the issues of values and ident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perception of gender has been historically shaped and changed. Among myths, the creation goddess myth is an important medium that helps with this understanding and can be used to provide various values and perspectives on gender. In particular, the creation goddesses of East Asia show that they are independent being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rder, and harmony of nature and the universe while harmonizing with the maternal and sacrificial roles of women. When mythology serves as a patriarchal ideology, analyzing and studying how femininity is performed through actions carried out in myths, and defining roles and identities through those

actions, can be a meaningful study in narrowing the gender conflict gap between generations with traditional values.

Key words: Gender, Gender Power Reallocation, Gender Performativity, Creation Goddess, Mago Halmi, Amaterasu, Nuwa(Nüwa)

투 고 일 : 2024년 9월 18일
최초심사일 : 2024년 10월 4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25일